

8세기 東아시아 情勢에서 바라본 唐·渤海 關係

卞 麟 錫 *

- | | |
|--------------------|------------------|
| I. 머리 말 | 2. 文化交流 |
| II. 渤海의 高句麗 繼承 | IV. 唐의 東北策 |
| 1. 天孫의 표명 | 1. 平盧淄青節度使의 變遷 |
| 2. 畏臣의 세계 | 2. 押新羅·渤海兩蕃使의 分析 |
| 3. 斥大土字 | V. 渤海의 登州 攻擊 |
| 4. 高句麗繼承의 대외표명 | 1. 등주해전의 원인 |
| III. 渤海와 新羅의 국제위상 | 2. 경위와 결과 |
| 1. 外交 長爭을 통해 본 南北國 | VI. 맺 음 말 |

I. 머리 말

당(唐)시대 발해와 중국관계를 한마디로 우호·화친관계가 일관되었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전쟁과 대립의 시기를 거쳤던 것도 사실이다. 이 시기를 특별히 부각시키는 이유는 당과 발해가 비록 짧은 시기이기는 하지만 대립·투쟁의 역사가 결코 만만치 아니하여 그들의 의도대로 기미책(羈縻策)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해는 8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세에서 불 때 엄연한 실체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해사의 독자성을 찾는 방향은 당의 책봉질서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의 부상에서부터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주변국들이 그러하였듯이 대국(大國)인 당을 등지고서는 그들의 왕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발해도 당이 기도하는 책봉질서에 때로는 순응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견해에 대한 사료 바탕은 『삼국사기』에 잘 표명되고 있다. 즉 고구려 유리왕의 대외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대저 나라에는 대소(大小)가 있고 사람에게는 장유(長幼)가 있다. 소국이 대국을 섬기는 것이 예의이다.”라고 하였다.

초기 발해사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는 당과 발해와의 대립·투쟁이 마치 고구려

* 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가 수당(隋唐)에 대항했던 것처럼 동일한 궤도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신사학(新史學)에서와 같이 전쟁을 상호대립의 투쟁만으로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다. 발해의 대당 충돌은 당이 흑수말갈과 밀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때의 관계를 풀어가는데는 두 가지의 경우를 전제로 할 수가 있다.

첫째, 동북아시아의 질서속에서 바라보는 당과 발해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

둘째, 당과 발해 관계를 오로지 중국의 문헌대로 믿을 것인가 등이다.

전자는 발해의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인 자리매김이 결코 중국의 바람인 기미책(羈縻策)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양극화된 국제정세를 중시한다. 일반적으로 주변의 오랑캐(外夷)가 중국보다 문화가 낮다고 해서 멸시받는다고 해석되지만 독자적인 정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나라에 눈치를 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대조공의 교통마저도 그들은 변속관계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쌍방적인 관점이라기 보다 종래 중국 중심의 입장이 강화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더욱 동북아시아의 역사적인 흐름속에서 이러한 관계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후자는 중국의 문헌 속에 자리 잡은 예속의 고정관념을 역사의 실제 속으로 끄집어 내어 파악하는 문제이다. 기록으로는 책봉(冊封)·하정(賀正)·조공(朝貢)·숙위(宿衛) 등의 파견과 도독의 설치 등에서 오로지 예속관계로 엮어가려는 것이 종래의 해석이었다. 이 점에서 보면 발해는 매년 사신을 당에 보내 조공하였다.¹⁾ 더욱 중국사에 있어서 왜곡된 한국과의 관계 기록이 많은 것은 중국의 주변사가 모두 고급 문자인 漢文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단지 한국, 돌궐, 위궐, 몽고, 만주만이 그들의 입장을 문자로 남겼을 뿐이다.

종래부터 중국은 발해를 그들의 지방정권 또는 기미주에 편입된 번속국(藩屬國)으로 보았기 때문에 한국사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발해사는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러시아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입장(立場)에 매달려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학자적인 양심에 서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종래 중국인은 역사상 한 번이라도 지배한 주변국을 중국사에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만큼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토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강하다. 따라서 주변국의 성질에 대해서도 심한 편견에 사로잡히게 된다. 역사왜곡은 이 같은 편견에서부터 만들어진다.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 주변을 갈라놓는 이분법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서로가 교류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① 사민(徙民) ② 할거집단(割據集團)(群雄·藩鎮포함)

1) 『舊唐書』卷199 下, 渤海靺鞨條「每歲遣使朝貢」. 全海宗先生은 조공의 본질을 3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즉, ①경제적 관계, ②예의적 관계, ③군사관계, ④기타칭신 등으로 나누었다.

③ 기미주(靺廝州)(특히 六胡州)등이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중국사에서는 변진할거를 중국통일의 장애물로 말한다. 때문에 中原에 할거하였던 군웅이 북방세력과 맺은 군사동맹까지도 하나의 '죄행(罪行)' '죄악(罪惡)'으로 말했다.²⁾ 어떤 세력체이든지 간에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군사동맹을 필요로 한다.

이같은 시각에서 보면 변진의 외곽에 존재하였던 이른바 '외이(外夷)'까지도 중국의 중앙정권에 통속(統屬)된 지방정권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족의 분산도 할거 못지않게 왜곡하는 부분이다. 당초 변경의 각 민족이 속속히 내부(內附)해 오며 따라 기미주가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여러 부족·부락이 있는 원래의 거주지에 설치하였고, 다른 하나는 당의 변주(邊州)에 설치한 이른바 '교치부주(僑置府州)'이다. 이들을 통치권으로 묶는다는 것은 정치의 목표가 되었다. 이와 달리 중국이 외이(外夷)로부터 받은 침략도 역사에서는 국가의 보위보다는 할거성의 적대행위가 먼저 언급되었다. 이것을 천하관적(天下觀的)인 역사기술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밖의 이족이 중국 영내의 향호(降胡)로 들어와 결집될 때는 변반(邊叛)의 위험이 따랐다.

이같이 밖의 오랑캐가 책봉으로 인하여 외신(外臣)이 되는 연결고리가 형성되었다. 여기에는 단순한 칭신납공(稱臣納貢)의 예의(禮義)를 다하는 충성의 의무가 따랐다. 따라서 중국과 대립하는 전쟁마저도 칭신의 명분을 내세웠다. 예컨대 당 태종때의 온언박(溫彦博)은 고구려의 저항을 두고 이들이 수(隋)에 칭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제(楊帝)에게 대항한 것은 신하의 도리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이 말을 정리해보면 고구려가 사대(事大)의 의리를 지키지 않는 이른바 교활한 태도를 두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고구려가 중국의 의지대로 조종되지 아니한 것임을 말해준다. 발해는 바로 고구려의 자주적인 태도를 강하게 따른 것이다. 그러한 흔적을 살피기 위해서 본문에서 발해의 고구려적인 계승을 다루어 보기로 하였다.

발해는 229년 동안 당과의 관계에서 우호·친선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발해가 140여 차례의 조공을 하였고, 또 10여 차례의 숙위를 파견한데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³⁾ 그렇지만 대립관계에서 볼 때 당시 동아시아의 역학관계에서는 당·신라↔돌궐·발해의 구도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치청절도사(淄靑節度使) 이정기(李正己)는 발해와 교역을

2) 臧嶸, 『突厥和隋王朝的關係試探』(『中央民族學院學報』1981-4) p.52 참조.
紅宣, 『試論唐太宗的民族政策』(『學習與批判』1975-2) p.52 참조.

3) 金毓黻, 『東北通史』(臺灣洪氏出版社, 1976) p.404에는 91차례의 조공도표를 작성하였으나 최근에 100여 차례 또는 140여 차례라는 불확실한 숫자가 보이고 있다.
卞麟錫, 『唐宿衛制度에서 본 羅唐關係』(『史叢』11) p.58 참조.

하고 신라와는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당·발해의 우호관계가 확립되기 이전에 무왕, 대무예(大武藝)가 집정할 시기에 당과의 대립이 첨예화되어 끝내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다.

이 충돌의 시기에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표방하였다. 때문에 발해의 등주 침입은 발해 초기의 역사적인 성격을 규명하는 핵심과제라 말할 수 있다.

II. 渤海의 高句麗 繼承

사서(史書)에는 발해의 건국을 진국(振國)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중국이 처음에는 달가와 하지 않는 기록을 남겼다. 그 이유는 자칭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중국의 질서에 편입되는 문을 두드리지 아니하였고, 또 당의 질서밖에 있었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위치는 『책부원귀(冊府元龜)』卷959 土風條에서와 같이 “진국은 본래 옛 고구려인데, 그 땅은 영주의 동쪽 2천리이고 남쪽은 신라와 접했다.” 라고 하였다. 적어도 7세기말~10세기초까지는 한국사에 편입되는 남북국시대(南北國時代)이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당(唐)왕조 통괄하의 지방봉건정권이라는 것이다. 즉 발해를 중국의 동북사(東北史)에다 위치를 설정할 뿐 그 외의 어떠한 나라 즉 한국사와의 관계를 배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견해는 전적으로 부인하는 태도이다.

발해 대씨(大氏)의 근원에 대해서는 여러 사서(史書)가 제각기 다른 입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간 조심스럽지 않다. 김육불(金毓黻)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즉 『구당서』 본전(本傳)은 발해, 말갈이라 하였고 대조영은 고구려의 별종(別種)이다. 『신당서』 본전에는 발해가 속말말갈인(粟末靺鞨人)으로 대씨는 고구려의 별종이다. 후에 속말말갈이라 불렀다. 이와는 달리 『신당서(新唐書)』에는 대씨가 본래 속말말갈인데 후에 고구려에 부속하였다. 또 『오대사기(五代史記)(四夷附錄)』 『오대회요(五代會要)』는 모두 발해가 말갈 고구려의 별종이라고 하였다.⁴⁾ 『삼국유사(三國遺事)』는 고왕(高王) 조영이 고구려의 구장(舊將)이고 발해는 고구려의 별종이라 하였다. 또 그는 발해 대씨의 내원에 대한 기록으로 『續日本紀』를 소개하였다.⁵⁾

구체적으로 발해국의 지배층을 소개하면 다음의 세 가지 견해가 있다.

4) 『北史』 卷99 「同羅者, 鐵勒之別部也」 및 『舊唐書』 卷219 「室韋, 契丹別種」.

5) 金毓黻, 『渤海國志長編』 卷19, 叢考, 渤海後志 2 참조.

① 말갈인설(靺鞨人說)(또는 粟末靺鞨)

이에 속하는 사람으로는 김육불(金毓黻), 왕승례(王承禮), 주국침(朱國忱) 등이다. 일본 사람으로는 이케우찌(池內宏), 쓰다(津田左右吉), 도리아마(鳥山喜一) 등이 있고, 또 러시아 인으로는 샤프쿠노프가 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이 설을 주장하는 일본학자의 입을 통하여 그들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② 고구려인 지배층설

이에 속하는 사람으로는 일본의 시라토리(白鳥庫吉)가 이에 속한다. 남북한의 학자로는 박시형(朴時亨), 이용범(李龍範), 이기백(李基白), 송기호(宋基豪), 한규철(韓圭哲) 등이 있다. 발해의 지배층이 고구려인이 주축이고, 다수의 지배층으로는 말갈인이 섞여 살았다는 주장이다.

③ 多民族 融合說

중국인으로는 손진기(孫進己), 최소희(崔紹憲), 손수인(孫秀仁) 등이다. 글자 그대로 여러 민족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위 세 가지 견해 가운데 ①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학계의 정설이 되다시피 하였다. 그 영향이 역사학계에 미치어 지금은 일반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⁶⁾ 중국에서는 발해라는 용어도 족명으로 보지 않고 국명으로 본다.

어쨌든 말갈에서 국호가 발해로 바뀌어지는 과정에서의 연구과제는 대조영과 말갈의 관계를 단절하는 확실한 해석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신당서(新唐書)』의 작자가 대조영의 출자를 말갈인으로 보고 본래 고구려에 속했다는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였던 의도를 알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구당서(舊唐書)』보다 늦게 서성(書成)된 『신당서(新唐書)』가 어째서 『구당서(舊唐書)』의 '고구려별종과 다른 견해'를 채택했는지의 이유를 알아야 한다. 『신·구당서(新·舊唐書)』의 견해를 합쳐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신·구당서(新·舊唐書)』가 뚜렷이 다른 견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지배층은 고구려인이고 피지배층이 다수의 말갈인이라는 문거(文據)는 어디에서도 찾아지지 않는다. 또 말갈의 7부 가운데 제7부째의 백산부(白山部)와 고구려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것도 그러한 것이다. 이 경우 잡거지(雜居地)의 연합적인 집단세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잡거인은 단

6) 중국의 역사교과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있다.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中國大百科全書(民族)』(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6) p.463 참조.

王鐘翰, 『中國民族史』(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p.413 참조.

일민족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민족의 혼합상태로 본다. 필자는 안록산(安祿山)과 같은 가자적(假子的) 세력체를 등장시키는 역사적 배경으로는 ① 사민 ② 잡거지 ③ 변진 할거 등을 중시한 바가 있다.

이와 달리 김육불은 발해군왕(渤海郡王)이란 봉호가 말갈의 어떤 구호(舊號)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다. 즉 대조영이 속말부(粟末部)이기 때문에 발해의 군망(郡望)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음성학적인 고찰에서도 ‘발(渤)’과 ‘말(靺)’은 같은 부자(部字)이고 ‘해(海)’와 ‘갈(靺)’도 같은 성자(聲字)이기 때문에 말갈이란 음이 발해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발해왕도 같은 것으로 추론하였다.⁷⁾

그러면 별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자. 북한의 박시형은 별종을 변종으로 해석하였다.⁸⁾ 필자는 별종이 절대로 동식물의 아종인 변종의 의미가 아니고 종속관계를 표명하는 일면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 한다. 발해의 지배층이 고구려인이라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만 별종이라는 의미가 변종이라는 데에는 찬성할 수가 없다. 별종은 중국사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별종(別種)’ ‘별부(別部)’ ‘별류(別類)’와 같이 주체의 지배계층이 아닌 다른 계통의 뜻이다. 그 근거는 고구려가 망하자 많은 유민[舊戶]이 돌궐 또는 말갈로 옮겨갔다.⁹⁾ 대조영도 이들처럼 잡거지인 영주(營州)로 옮겨갔다고 여겨진다. 그가 말갈에 나누어 흩어진 (일본사람들은 沒入이라는 용어를 씀.) 이른바 ‘분투(分投)’의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가 말갈인과 더불어 어우러진 이유만으로도 구고구려인·말갈인을 중심으로 한 연합체의 영도자임에는 틀림없다. 더욱 여러 부족의 혼재적인 성격을 가진 연합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결과 중국사서가 고구려 중심의 연합체로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닐까? 때문에 별부 또는 별종이라는 말을 쓴 것이다.

중국의 사서를 편찬한 전통사가들이 민족의 계통에 대하여 그렇게 잘 알았으리라고는 보이지않기 때문에 평이하고, 기계적인 답습으로 ‘별종’, 또는 ‘별부’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때문에 ‘별부’ 또는 ‘별종’이라는 단어를 정통사가들이 전대의 기록을 답습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필자는 『구당서(舊唐書)』 권199하에 “발해말갈대조영(渤海靺鞨大祚榮)은 본래 고구려별종(高句麗別種)이다.” 또 『자치통감(資治通鑑)』 권210에는 “초에 고구려가 망하고 그 별종 대조영이 영주로 옮겨갔다”에서와 같이 별종을 변종의 뜻으로 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발해가 다종족으로 구성된 나라임을 두고 볼 때 지배계층이 아니었다는 쪽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당서』 권22에 고구려나 백제를 두고 말할 때 ‘부여별종(扶

7) 金毓黻, 『東北通史』(臺灣洪氏出版社, 1976) p.394 참조.
8) 박시형, 「발해사 연구를 위하여」(『역사과학』, 1962-1) p.16.
9) 『舊唐書』 卷199 上, 高麗傳 참조.

餘別種)이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즉 고구려와 백제의 지배층이 본래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종족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진국의 탄생이 큰 응지를 가지고 시작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는 것을 명분으로 표명하면서 말갈의 세력체를 끌어들이 국가의 기틀로 다졌다. 국호도 발해로 바꾸었다. 이때 발해는 영토 확장을 시도하는 한편 자주적인 노선으로서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하였다. 2대 대무예는 인안(仁安)이란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 같은 방침은 발해가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넘어야했던 장애물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시키는 대외표명은 흠어진 고구려인을 모으는데 있어서 중요한 조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표명의 기치 아래서 영주(營州) 주변에 흠어져 있었던 고구려인, 말갈인을 끌어 모으는데 있어서는 그들의 고국인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고구려를 계승하는 것이 구심체가 되었을 것이다. 즉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그 위에 세웠던 독자의 주권·역사·문화·풍속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집정의 목표가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1대 고왕 대조영, 2대 대무예 무왕, 3대 대문예 문왕에 걸친 3대의 중요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국토를 넓혀가자 동북의 오랑캐들이 놀라 신하로 굴복해 들어왔다. 이러한 국토개혁의 방침은 단순한 국호의 계승만이 아니고 실천적인 내용을 담았다는데 특색을 갖는다. 발해의 건국은 고토를 되찾고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 데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당·돌궐로부터 어느 정도 묵인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발해의 건국이 돌궐로부터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였다. 그 이유는 당과 돌궐이 대립한 시기에 상대를 견제하는 제3의 세력을 서로가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보면 발해가 건국하자 곧바로 돌궐에 사신을 파견하였던 것이다.¹⁰⁾ 그러나 발해의 영토확장은 당과 신라에게 긴장을 던져 주었다.

그러면 어찌하여 발해가 건국 초에 고구려가 수당에 대하여 저항을 폈던 것처럼 그러한 길을 택하게 되었을까? 앞에서와 같이 진국의 건국이 구고구려인을 중심으로 하여 말갈인과 기타 사람들의 연합체를 형성시키는 데에서 출발하였음은 앞에서 말한 바가 있다. 이것은 고구려가 수당에 폈던 길항(拮抗) 즉 반수당(反隋唐)과 친돌궐(親突厥)의 통교(通交)와 같은 맥락이다. 발해의 건국이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데에는 궁·부정의 논란이 없지 않다. 궁정의 입장에서는 발해의 전체사(全體史)에서 보다는 초기의 역사에서 찾는 것이 더 용이하다. 이 점에서 대조영(大祚榮), 대무예(大武藝)가 쏟아 부은 건국방침에서부터 국기를 다지는 확립 시기까지 고구려의 기상을 계승한 분위기에서 찾게 된다.

10) 『舊唐書』卷199, 渤海傳「聖曆中, 自立爲振國王, 遣使通於突厥。」

1. 天孫의 표명

천제(天帝)의 아들 해모수(解慕漱)가 도움을 정한 건국신화에서 발해의 천손 즉 천제의 아들이라는 선택된 궁지와 같은 뿌리를 엿보게 한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가 나라를 세운 건국과정은 『삼국사기』에 자세하다.¹¹⁾ 이에 의하면 시조 동명성왕의 성은 고씨(高氏)이다. 발해의 시조 대조영과는 어떤 관계일까?

어떤 사람은 ‘高’와 ‘大’는 모두 높고 크다는 뜻에서 같은 말로 풀이하였다. 719년(開元 7) 대조영이 죽었을 때 대무예를 계루군왕(桂婁郡王)으로 책봉한 바가 있다. 계루군(桂婁郡)은 고구려 5부중의 하나이다. 이 같이 고구려 왕실을 낳은 천손사상의 표명은 772년(대흥(大興) 34) 발해의 대문왕이 일본 왕에게 보낸 국서에서 ‘천제의 아들’이라고 밝힌 데에서 알 수 있다.¹²⁾

2. 畏臣의 世界

발해가 동북아시아의 지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보인 위협적인 존재는 사서(史書)의 ‘외신지(畏臣之)’라는 말에서 찾게된다. 외신지의 대상이 어느 부족들을 가르키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사서에서 동북의 오랑캐(東北諸夷)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 흑수말갈에 속했던 16부족 중 철리(鐵利), 불열(拂涅), 월희(越喜), 우루(虞婁) 등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외신지’란 말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 ① 발해의 군사력이 강대하였다는 것
- ② 동북제이(東北諸夷)로부터 칭신(稱臣)을 받는 위치에 섰다는 것
- ③ 당정(唐廷)을 업수이 여기는 마음이 심하게 생겨났다는 것 등이다.

위 ①③은 『자치통감(資治通鑑)』권206에 보이는 후동돌궐한국(後東突厥汗國)이 강성하였을 때 당을 업신 여기는 태도를 예로 든 것이다.¹³⁾ 사서에서 말하는 ‘서북제이(西北諸夷)’

11) 『三國史記』卷13, 始祖東明聖王條 참조.

12) 『續日本紀』卷32, 寶龜 3年 2月 己卯條 참조.

13) 『資治通鑑』卷206, 聖歷 元年條 「默啜還漠北, 擁兵四十萬, 據地萬里, 西北諸夷皆附之, 甚有輕中國之心」.

는 '동북제이(東北諸夷)'와 같고 '개부지(皆附之)' 개신지('皆臣之)'와 같은 뜻이다. 예컨대 이정기(李正己)의 할거를 두고 사서에서는 '십만병력(十萬兵力)을 옹유(擁有)하고, 동방에 응거하니 다른 번진이 모두 놀라와 했다(隣皆畏之)'라고 한데에서 독자적인 응거의 세력이 등장한 것으로 보게 된다¹⁴⁾. ②는 수말당초의 북방제국인 돌궐에 대한 중국의 인식에서 말해본 것이다. 이와 같이 발해의 등장은 동북아시아의 한 지역을 통일하는 역사를 만든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당은 중국 이외의 블록체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였지만 그 세력의 실체만은 등한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신지(畏臣之)'란 기록을 남겼지 않았을까 본다.

3. 斥大土宇

발해가 사방으로 영토 개척을 꾀함에 따라 북방으로는 흑수말갈에게 긴장을 주었고 남으로는 당·신라에 위협을 주었다. 흑수말갈은 말갈의 7부족 가운데 북쪽에 있으면서 가장 강성하였다.¹⁵⁾ 이들이 끝까지 고구려에 복속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과 고구려가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양면 외교를 펼쳤다. 이들은 고구려의 남쪽에 있었던 말갈의 입장과는 달랐던 것이다.

발해의 대대적인 영토확장은 옛 고구려의 땅을 회복한다는 기치 아래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동모산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적극적인 사방경략을 추진하여 발해국의 기반을 튼튼히 하였다. 그 대상은 발해국의 동북부에 있었던 말갈제부와 실위(室韋) 제부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대무예 때의 발해 강역은 대조영 때보다 확대된 것으로 그 영토는 지금의 흑룡강성의 서남과 동남을 포함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개척된 신영토위에서 대무예의 정치적 기반도 공고해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새롭게 인안(仁安)이라는 연호를 썼다. 『신당서』권219 발해전의 '영토개척(斥大土宇)'은 동북아시아의 일정 지역을 자주적으로 통일한 정권을 등장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대무예의 영토개척에 따른 정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발해의 영토개척은 동북아시아를 통일하는 정권으로 등장하였다.

4. 高句麗繼承의 대외표명

14) 『資治通鑑』卷225, 大歷 12年 12月條「法令齊一, 賦均而經. 擁兵十萬, 雄據東方, 隣藩皆畏臣之」.

15) 『隋書』卷81, 靺鞨傳「其六曰黑水部, 在安車骨西北. 其七曰白山部, 在粟末東南, 勝兵并不可三千, 而黑水部尤爲勁健…」

발해는 자체의 기록을 남기지 못하였다. 때문에 발해사의 입장에서 쓰여진 표명을 찾아낼 도리가 없다. 다행히 무왕과 문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가 『속일본기』에 실려 있다. 국서(國書)에서 고구려 계승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 하나는 728년(開元 16) 발해의 무왕, 대무예가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또 부여의 유속을 지녔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왕 즉 대흠무(大欽茂)가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스스로 ‘고려국왕대흠무(高麗國王大欽茂)’라고 자칭하였다. 발해가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풍속을 소유했다는 표명위에서 고구려왕으로 자칭한 것은 고구려의 계승의 자부심을 뿌듯하게 나타낸 것이다.¹⁶⁾

이에 대한 일본의 답서〔復書〕에서도 그 칭호가 수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김육불은 대씨와 고구려가 종족적으로 혈연관계(血胤關係)가 없었다면 어찌하여 이같은 말이 나왔겠는가 라고 하는 의문에서 『속일본기』를 중요시 하였다.

이와같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기상의 분위기가 내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대문예(大門藝)의 입을 통해서 비쳐지고 있다. 국제지식이 풍부한 대문예가 바라보았던 당과 발해의 국력 비교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고구려가 가장 강성하였던 전성기의 병력 30만으로 수와 대적하였지만 당에 와서는 단 한 번으로 [一臨] 소진(消盡)되고 말았다. 지금 발해 군사는 고구려의 1/3이고, 당나라 군세보다 만배가 약한데 어찌 당정(唐廷)에 위배하고 하물며 실패를 자초할 것인가”라고 말한 데에서 고구려·발해↔수·당의 연속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시 동북아시아의 양극화 현상을 드러낸 것으로 볼 것이다.

Ⅲ. 渤海와 新羅의 국제위상

16) 『續日本紀』에 보이는 발해의 國書와 이에 대한 일본의 復書는 아래와 같다.
 『續日本紀』卷10, 神龜 5年 正月 甲寅條 「高齊德等上, 其王書并方物, 其詞曰, 武藝啓, … 武藝忝當列國, 濫摠諸蕃, 復高麗之舊居, 有夫餘之遺俗, 但以天崖路阻, 海漢悠悠, 音耗未通, 吉凶絕問…」.
 同 神龜 5年 四月 壬午條 「仍賜其玉璽書曰, 天皇敬問渤海郡王, 省啓具知, 恢復舊壤, 聿脩曩好, 朕以嘉之」(위에 대한 答書).
 同書 卷22, 天平寶字 3年 正月 庚午條 「高麗國王大欽茂言…」.
 同 天平寶字 3年 2月 戊戌條 「敬問高麗國王, 使揚承慶等, 遠涉滄海, 來弔國憂…」(위의 答書). 이외에 卷32, 寶龜 3年 2月 己卯條 및 寶龜 8年 5月 癸酉條에도 ‘고려국왕’이란 글자가 표명되고 있다.
 『渤海國志長編』卷19 叢考 渤海後志2 이에 의하면 「文王 欽茂가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고려 국왕이라고 직칭(直稱)하였고 이에 대한 일본의 복서(復書)에서도 누차 고구려 구사(舊事)를 인용하여 대씨와 고구려의 종족적인 혈연(血胤)관계를 엿보게 한다고 말했다.

위에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일면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문화적 배경을 찾아보려고 한다.

1. 外交 長爭을 통해 본 南北國

남북국이란 말은 북의 발해를 한국사에 편입시키는 역사인식에서부터 나온 말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남북이란 흔적이 보이고 있다.¹⁷⁾ ‘고구려잔얼(高句麗殘孽)’이란 고구려여중(高句麗餘衆)과 같은 말이다. 잔얼이란 망명집단을 말한다.

조선조의 실학자 유득공(柳得恭)에 와서 남북국이라는 개념이 선명해진다. 그는 고려왕조가 발해의 역사를 찬수하지 아니한 데에서 국세가 떨치지 못한 원인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국은 발해가 고구려의 유민을 받아들여 편호(編戶)를 만든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그에 의하면 남북국시대란 발해가 고구려를 병합하고 신라가 백제를 병합하여 종래 삼국정립의 시대를 계승했다는 것으로 보았다. 발해왕은 당으로부터 내려진 처음의 봉호이지만 무왕·문왕에 이르러서는 대외적으로 ‘고구려왕’으로 사용하였다.

발해와 신라의 국제적 위상의 높이는 신라가 발해보다 우위에 있었다. 이것은 당과 신라의 전통적인 친밀·우호관계에서 판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장쟁사례에서 엿볼수가 있다.¹⁸⁾ 그 실증적 바탕이 되는 것이 두가지 이다. 하나는 최치원의 ‘표사불허북국거상(表謝不許北國居上)’과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이다.

2. 文化交流

발해는 적극적인 문화교류를 추진하여 성당문화(盛唐文化)를 이룩하였다. 발해가 남긴 유물중에는 온돌을 비롯하여 고구려·백제·신라와 유사한 이불병좌상(二佛并座像)이 발견되고 있다. 물론 당의 영향을 받은 발해의 문화권 형성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보면 신라와의 교통도 착실히 열려진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한 가능성으로 발해의 남해부(南海府)·압록부(鴨綠府)·부여부(夫餘府)·책성부(柵城府) 등의 4부에서부터 신

17) 『三國史記』卷46, 崔致遠傳「至儀鳳三年, 徙其人於河南隴右, 高句麗殘孽類, 北依太白山下, 國號爲渤海」.

『三國史記』卷10, 元聖王 6年條「三月, 以一吉浪伯魚使北國」.

18) 卞麟錫, 「唐代 外國使 爭長の 연구」(『亞細亞研究』 28, 1967) 참조.

라의 천정군(泉井郡)까지 39개의 역(驛)이 엄연히 개설되었기 때문이다.¹⁹⁾ 김육불에 의하면 발해의 책성부는 동경용원부(東京龍原府)인데 여기서 발해와 신라의 교통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²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정천부(井泉府)는 한반도의 동북부에 있는 덕원(현 元山부근)이며, 이러한 39역의 거리는 1,170리로 보고 있다

위에서와 같이 발해가 끝까지 독자적으로 사용한 연호, 영토개척, 고구려계승의 대외표명, 주변국으로부터의 칭신질서의 구축, 그리고 문화교류와 교통 등의 축을 통하여 고구려 계승을 실천해 나간 것이다. 아울러 국제무대에서 인지된 조건은 신라가 발해보다 우위에서 작용되었다.

IV. 唐의 東北策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발해의 건국을 두고 그들의 소수민족인 말갈인(靺鞨人)이 세운 나라이고 이들의 성격 또한 당의 지방정권으로 보고 있음은 앞에서 말하였다. 그 근거는 당조로부터 책봉(冊封)을 받았다는데 있다. 이 책봉은 698년 고왕 대조영이 나라를 세운 데서부터 926년 거란(契丹)에게 멸망당하기 까지 229년간의 정치적인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 된다. 처음의 책봉은 713년 최흔(崔忻)을 보내 대조영을 좌효위원의대장군(左驍衛員外大將軍)·발해군왕(渤海郡王)으로 봉하였다. 또 흘한주도독(忽汗州都督)을 가수(加授)하였다. 무왕도 발해군왕, 흘한주도독을 받았다. 이후 계속해서 발해군왕, 흘한주도독에 책봉되었다.

그러나 발해의 실제적인 관계는 때에 따라 대립·충돌이 촉발되었다. 이것은 엄연한 실체임을 드러낸 것이다. 수말당초 중국과 돌궐 사이에 맺어진 칭신의 경사관계가 오히려 북방제국에서부터 책봉을 받았다. 중국 중심의 칭신 질서가 역전된 순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의 중국을 역사의 실체로서 더 주목한다. 때문에 책봉만으로 정권의 예속성을 규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럼에도 중국에서는 발해가 건국에서부터 당의 책봉을 받고 칭신납공하였기 때문에 예속관계가 설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발해의 초기는 전적으로 예속성이 아님이 대외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한 예가 발해는 713년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년 뒤가 되는 732년 등주를 공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관계로 보아 두 나라의 관계는 철저한 예속성 보다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었을 런지도 모른다. 이때의 부분이란 왕실간에 또 시간적으로 짧게, 간헐적인 내용을 담았다

19) 『三國史記』卷37, 雜志6, 地理4 참조.

20) 金毓勳, 『東北通史』(臺灣洪氏出版社, 1976) p.438 참조.

는 뜻이다. 실제로 대무예의 세력확장 시기에 나타난 당과의 충돌마저도 변진할거라는 시각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중심사관(中心史觀)에서 볼 때 발해를 그들의 지방정권안에 넣어 설명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대조영, 대무예의 양대(兩代)에는 중앙집권의 무력이 강화된 시기임을 두고 볼 때 발해가 고구려의 후속임을 힘차게 대외로 천명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면 대무왕의 대당(對唐) 정책을 알아보기로 하자.

한마디로 대무왕은 고구려가 수당에 대처하였던 강경책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이때의 대외상황이 같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당에 대하여 저항·충돌을 드러낸 것은 유사하다. 이러한 관계를 두고 『구당서』발해전에 ‘국토를 크게 확장시키니 동북의 오랑캐들이 두려워 신하가 되었다’라고 적었다.²¹⁾ 이것은 『구당서』 권194上 돌궐전에 보이는 ‘수말에 천하가 대란(大亂)을 맞아 많은 중국인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때마침 돌궐이 강성하여 동쪽으로는 거란(契丹), 실위(室韋)와 서쪽으로는 토욕혼(吐谷渾), 고창(高昌) 등이 모두 신속하였다’라는 북방정세의 파악과 같은 것이다. 『구당서』 발해전의 이른바 ‘외신(畏臣)’은 새로운 발해세력의 등장을 두고 말한 것이다.

이때의 국제정세는 크게는 돌궐과 당이 대치하는 구도에서 고구려는 돌궐과 우호관계를 두텁게 하였다. 고구려가 수당에 대하여 강렬한 항형(抗衡)·길항(拮抗)의 태도를 나타낸 것은 배후의 북방제국에 의지하는 바가 컸기 때문이다. 『신당서』 권215 하 돌궐전에는 ‘항형(抗衡)’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역사는 고구려를 당에 대항한 범주안에 넣었지만 발해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비록 발해가 친북반당의 노선을 택했다 하더라도 중국의 입장은 할거성을 줄이기 위해 천하를 일통(一統)의 역사속에 넣으려고 하였다. 대문왕 이후의 우호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여기에 같은 외이(外夷)일지라도 천하관적인 역사기술의 인식차이가 있다. 그것은 외이(外夷), 변진(藩鎮)이 중국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분산(分散), 할거(割據)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중국 역사가들도 이러한 고정관념에 박혀서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분립의 상황을 축소하려는 발해의 역사에서 작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발해의 등주 공격은 우리의 국사 교과서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개설서에서조차 찾기 어렵다.²²⁾

21) 『新唐書』 卷219, 渤海傳 「子武藝立, 斥大土宇, 東北諸夷畏臣之, 私改曰仁安」(『文獻通考』卷326 에도 同記하였다.)

22) 陳顯昌, 『渤海國史概要2』(齊齊哈兒師範學院學報, 1983-2).
王成國, 「近年來國內研究渤海史概況」(『中國史研究動態』, 1982-10) p.10에서 신중국성립 이후 발해정권의 성격에 대해 중국적인 입장이라는 하지만 아래의 6가지의 논점을 들고 있다.

그러면 당의 발해 관계가 어떻게 운용되어 졌는가의 실태를 살펴보자.

1. 平盧淄靑節度使의 變遷

평로절도사는 중국의 동북변방을 관리하는 중요한 방진(方鎮)이다. 이것은 9개의 방진 가운데 하나이다. 처음에는 홀한주도독도 여기서 관장하였다. 또 719년(개원 7) 평로군사(平盧軍使)는 평로절도사로 진행되면서 안동도호(安東都護)와 영(營), 요(遼), 연(燕) 등 3주가 이의 겸임하에 들어갔다.²³⁾ 안동도호는 고구려의 구영토가 발해에 귀속되자 당의 중종(中宗)때 안동도호로 고쳤다.

이의 설치는 719년(개원 7) 영주유성(營州柳城)에서 시작되었다. 설치의 배경은 동북변경의 정세와 깊게 관련되고 있다. 즉 거란(契丹), 해(奚), 발해(渤海), 말갈(靺鞨), 실위(室韋) 등을 당이 경략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관장하는 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에 주둔한 병력이 오히려 안사난을 일으키는 화근이 되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게 되었다.

안사난을 평정하는 후기에 이르러 당이 장안을 수복하자 잔당인 사조의(史朝義)가 본래의 근거지였던 평로(平盧)로 회귀하였다. 그 후 당은 이곳의 소굴부터 평정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그래서 후희일(侯希逸)을 평로절도사로 임명시켰다. 이들 쌍방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틈을 탄 북쪽의 해족(奚族)이 평로절도사의 북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남쪽은 유주(幽州)가 안사집단의 핵심장수인 이회선(李懷仙)에 의하여 장악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평로 절도사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 산동으로 옮겨 갔던 것이다.

761년(上元 2) 후희일이 평로절도사 휘하의 군사 2만 여명과 이들의 가족을 이끌고 영주를 떠나 산동반도의 북단으로 남하하였다. 이 같은 이동을 당은 승인할 수밖에 없었고, 아울러 후희일을 평로치청절도사로 임명하였다. 여기서도 평로란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사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즉 평로, 치청, 평로치청, 치청평로, 청치평로(靑淄平盧) 등이다. 이들이 관할하는 지역은 청(靑), 치(淄), 제(齊), 해(海),

㉑ 말갈족이 세운나라.
㉒ 영토는 중국땅이라는 것.
㉓ 발해는 당왕조로부터 책봉·작위를 받고 조공을 바친 것.
㉔ 발해의 영토위에 당의 행정기관을 설치하여 관할했다는 것.
㉕ 발해국왕의 자제와 관리가 당조로부터도 관리로 임용되었다는 것.
㉖ 당문화가 널리 전파된 것 등이다.

23) 『新唐書』, 方鎮表 참조. 金毓黻에 의하면 719(개원7)부터 이의 개칭이 있었다고 한다.

조(曹), 복(濮), 제(除), 연(兗), 운(鄆), 기(沂), 밀(密), 등(登),萊(내), 덕(德), 체(棣) 등의 15주이었다. 이곳은 비옥한 땅 때문인지는 모르나 부세(賦稅)가 고르고 또 가벼웠던 것이 다른 번진과 달랐던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재부(財富)가 넉넉한 경제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 법령도 하나 같이 고르게 통용되었다.²⁴⁾

그 기간이 산둥, 하북, 하남의 주·현이 포함되었다. 이들이 할거하였던 188년중에 산둥에서 보낸 기간은 자그만치 146년이나 된다. 이정기(李正己)－이납(李納)－이사고(李師古)－이사도(李師道)로 이어지는 3대가 치청을 지배한 기간은 55년간(765~819)이다. 이들은 10만병력을 거느리고 15주를 다스렸다. 이들의 군사, 경제력은 장기간 세력을 떨친 하북삼진(河北三鎮)보다 뒤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들의 노선은 중앙과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이었다. 중요한 재정수입은 양세(兩稅), 영전(營田), 상업(商業) 이외에 잡세수입인 염철(鹽鐵)의 전매에서 나온 이익에서 매기는 세금이 큰 비중을 차지 하였다. 양세법이 실시된 이후에도 비옥한 토지로 인하여 재정은 튼튼하였다.

이같은 우월한 재정적인 바침위에서 잡호의 사적(私的)인 집단을 형성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사적 집단은 십중팔구 당군과 대항하는 할거세력이 되었다. 하삭(河朔)이 다른 번진과 달리 할거형(割據型)이 된 이유에는 안사집단의 잔당세력인 잡호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산둥으로 남하하기 전에 평로절도사가 위협을 받았던 것은 북방의 해족(奚族)으로부터이다. 이의 배후에는 돌궐이 있었다. 돌궐은 해(奚)·거란(契丹)을 그들의 기미대상으로 삼아 조종하였다. 이와같이 발해는 당이 해·거란을 견제하는 세력을 필요로 하였을 때 등장하였다.

본래 거란, 해는 동방의 양번(兩蕃)으로 불리워졌다. 중국역사에서 이들이 등장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안록산 집단의 핵심 사병(私兵)이 되었을 때이고 부족적으로는 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었을 때이다. 이와 달리 중앙 정부는 사인(士人) 관료집단의 쇠퇴로 인하여 환관의 독단을 불리 일으켰다. 더욱 환관의 독단은 황권(皇權)과 번진의 투쟁 속에서 권력을 쥐는 전형의 국면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삼각의 구도 속에서 번진의 위협에 대한 황권의 견제는 오직 환관 중사(中使)를 번진으로 파견하는 소극적인 길 뿐이었다.²⁵⁾

720년(개원 8) 거란의 지배자 이파고(李婆固)가 그의 아관(牙官) 가돌간(可突干)이 오랜

24) 『資治通鑑』 卷225, 大歷 12년 12월조 참조.

25) 『資治通鑑』 卷220, 乾元 12月條 「平盧節度使王玄志崩, 上遣中使往撫將士」, 上同書, 卷237, 元和 元年 正月條 「先遣中使察軍情」, 卞麟錫, 『安史亂의 新研究』(螢雪出版社, 1984) p.267 참조.

집정을 계속하자 이것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중도에 탄로가 나자 이파고가 영주(營州)로 도망하였다. 영주도독 허흠담(許欽澹)이 안동도호를 보내 이파고를 받들고 가돌간과 싸웠으나 패하고 말았다. 『자치통감』에는 이때 당은 가돌간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대보(李大輔)의 아우 노소(魯蘇)를 요락도독(饒樂都督)으로 삼았다고 기록하였다.²⁶⁾ 영주는 문화·종족상 잡거가 어우러지는 양속(兩屬)지대 이었다. 이 사건은 영주를 혼란으로 빠트렸다. 이 때의 북방정세는 후동돌궐(後東突厥)의 비가가간(毗伽可汗)이 나와 후돌궐의 중흥을 꾀하고 있었을 때이다. 때문에 많은 돌궐인이 그들의 구토(舊土)로 되돌아 갔다.

당과 이들 양변과의 관계는 당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648년(정관 22)에 거란이 중국에 내부(內附)해 오자 송막도독부(松漠都督府)를 설치하였다. 해(奚)도 같은 시기에 요락도독부(饒樂都督府)를 설치하였다. 당과 비가가간(毗伽可汗)의 관계는 다시 수말 당초때 처럼 대립시기로 들어갔다. 이 밖에 실위(室韋)는 약간 앞선 629년(정관 3) 사주(師州)를 설치하였다. 또 속말말갈은 물길(勿吉) 7부의 일파로 본래 백두산 북쪽에 살았다.

수에 와서 탁지계(度地稽)가 그의 무리를 이끌고 영주에 사거(徙居)하였다.²⁷⁾ 이곳에 옮겨온지 30년이 채못되는 696년(通天1) 5월에 영주 외곽의 거란에 둔 송막도독 이진충(李盡忠)이 영주도독 조문훤(趙文翽)로부터 동족인 거란사람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병을 일으켰다.

이때 영주의 속말말갈이 이진충의 진영으로 합세하였다. 다음해 이진충, 손만영(孫萬榮)이 죽자 고구려유민과 속말말갈의 수령 걸걸중상(乞乞仲象), 말갈추장 걸사비우(乞四比羽)가 요하를 건너 백두산 동쪽으로 근거를 옮겼다. 여기서 성을 쌓고 방비를 굳게 하였다. 당의 무척친은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걸사비우를 허국공(許國公), 걸걸중상을 진국공(振國公)으로 책봉하였다.

위 이진충과 손만영은 처남간이다. 이들이 벌린 불굴의 반당(唐)투쟁은 당말에 와서 요(遼)를 세우게 되었다. 걸사비우는 순순히 당의 말을 듣지 않고 당이 세운 옥검위대장군(玉鈐衛大將軍) 이해고(李楷固)를 죽였다. 걸걸중상의 아들 대조영이 무리를 이끌고 당군과 싸웠다. 이때 밖으로는 거란, 해족이 후돌궐한국에 항복하였고 이에 따라 당은 동북으로 통하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더 이상 속말말갈을 토벌할 수 없게 되는 틈을 타서 대조영이 713년(開元 1)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다. 이때 국호를 진(震)국왕이라 하였다. 사서에 따라서는 진(振)으로도 표기하였다. 발해의 건국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668년(總章1) 9월 당의 요동도행군대총관(遼東都行軍大總官) 이적(李勣)이 고구려를 멸망시키자 본래 고구려에 속했던 대씨 성을 가진 일족이 고구려와 말갈인을 무리를 합쳐서

26) 『資治通鑑』 卷212, 開元 8年 11月條 참조.
 27) 『舊唐書』 卷199 下, 참조.

이해고(李楷固)를 궁지에 빠뜨렸다.²⁸⁾ 여기서 승기를 잡은 대조영이 성역 원년(698) 동모산을 근거로 하여 정권을 세웠다.

2. 押新羅·渤海兩蕃使의 分析

765년(永泰1) 이정기가 평로지청절도사의 봉호(封號)를 받음과 동시에 압신라발해양변사도 받았다. 정기(正己)라는 이름은 당으로부터 받은 사명(賜名)이다. 이후 이남(李納), 이사고(李師古), 이사도(李師道) 등도 같은 봉호가 계승되었다. 대표되는 명칭이 “평로지청절도사압신라발해양변사(平盧淄靑節度使押新羅渤海兩蕃使)”이다.

위의 압(押)은 관장, 관리한다는 뜻이다. 이 명칭으로 살펴보면 평로절도사는 산동지역을 관리하는 것 이외에 신라·발해까지도 관장하는 직무가 부여되어진 것이다. 즉 신라와 발해를 겸직한다는 뜻이다. 이 겸직안에는 신라와 발해를 분리하는 철저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지 않고 나라별로 나열한다던지 묶었다면 ‘압일본사(押日本使)’도 있어야만 했다. 그만큼 발해와 신라의 분리정책은 당시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도 중국 관방(官方)에서 올리는 내부보고에는 ‘남한·조선’이 함께 쓰여진다고 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동북아시아의 외교목표가 통일을 도우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반도의 분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늘어난 교역 활동에 대비한 조치로서 신라와 발해를 각기 나누어 담당할 직무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쩌서 동북아시아의 국가 가운데 하필이면 신라, 발해만이 들어갔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 들지 아닐 수 없다. 그 해답을 푸는 데 있어서 다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 ① 두 나라가 대국이라는 것.
- ② 연해국이라는 것 등이다.

정확히 말하기가 어렵지만 위 ① ②는 모두 관련있는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당의 동북아 정책이 발해와 신라가 서로 분리되는 것을 바라는데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생각된다.

741년(開元 29) 유주절도부사(幽州節度副使) 안록산의 경우도 영주자사(營州刺史)가 된 후 평로군절도부사와 ‘압양변·발해·흑수사부경략사(押兩蕃·渤海·黑水四府經略使)’에

28) 『舊唐書』 卷199下 渤海靺鞨傳에는 聖歷年(698~699)에, 『資治通鑑』 卷210에는 開元1년에 건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임되었다.²⁹⁾ 또 압해거란양번사(押奚契丹兩蕃使)·압제번부락사(押諸蕃部落使)의 명칭도 있다.³⁰⁾

29) 『舊唐書』卷9, 玄宗本紀.

30) 『新唐書』卷64, 및 66의 方鎮表 참조.

V. 渤海의 登州攻擊

1. 登州해전의 원인

발해의 해군이 등주를 침략한 원인에는 발해의 대당책이 적극적으로 깔려있다. 침략의 주도자인 대무왕은 전왕이 착수한 고구려 옛 땅을 되찾는 정책을 기본으로 삼는 연속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때 발해와 신라의 각축전은 패강(溟江) 상류와 청천강 일대에서 전개되었다. 발해의 남하가 한반도로 쉽게 눈을 돌릴 수 없었던 이유는 발해·말갈·당·신라가 서로 대치하였기 때문에 대치가 얽힌 이곳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721년 신라가 하슬라도(何瑟羅道) 정부(丁夫) 2,000명을 징집하여 북경(北境)에 다 장성을 쌓고 경계를 튼튼히 한 것도 대치 분위기 때문이었다.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조영이 나라를 세울 때 당은 회유책의 일환으로 봉호(封號)를 대조영에게 주었고 이의 담보로 시자(侍子)를 파견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하였다. 이 시자가 누구인가 하면 대문예(大門藝)이다. 대문예는 대무예의 동복아우이다.

발해가 당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기는 외교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북쪽에 있는 흑수말갈과 상통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더욱 흑수에서부터 중국으로 가는 길이 발해의 경계를 통과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당과 손을 잡고 발해를 배후에서 공격할 위험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개원 초에 귀국한 대문예를 토벌장군으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 흑수를 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문예는 전쟁을 감당해 내기가 어려웠는지 중도에서 거역하고 당으로 도망쳐 이의 부당함을 알렸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발해는 사절을 당에 파견하여 대문예의 죄상을 낱낱이 알리고 죽이도록 요구하였다. 당은 대문예를 안서(安西)로 몰래 빼돌리면서 대문예는 당에 귀순하였기 때문에 의리상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지금의 영남(嶺南)으로 보내졌다고 하였다. 이같은 당의 통고에도 불구하고 발해는 중국이 대국(大國)임에도 신의가 없으니 어찌 기만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힐난하면서 다시 죽일 것을 요구하였다.

이같은 미묘한 사건을 외교로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발해는 마침내 732년(開元 20) 장수 장문휴(張文休)에게 해군을 이끌고 등주를 공격토록 하였다. 중국 기록에는 ‘구(寇)’·‘해적(海賊)’이란 심한 편견을 나타냈다. 이때 자사 위준(韋俊)이 살해되었다. 당은 대문예를 유주(幽州)로 보내 군사를 모집하여 발해를 치도록 하는 한편 마침 숙위로 당에 가있었던 김사란(金思蘭)을 신라로 보내 발해의 남쪽을 공격토록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등주공격에 대한 일자의 출입이다.

2. 경위와 결과

당에 숙위(宿衛)로 파견된 김사란(金思蘭)을 통하여 발해의 남변을 공격해 달라고 요청 받은 신라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출동을 결정하였다. 그것은 신라가 정해놓은 북방책의 노선에서 고려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전략상에서 보면 북변(北邊)에 병력을 보내는 것은 당군·대문예의 군대와 연합으로 협공을 하였기 때문에 신라가 독자적으로 싸우는 것 보다는 쉽게 결정할 수가 있었다. 이때 발해는 영주도(營州道)에서 산해관(山海關)으로 나와 육로로 마도산(馬都山) 아래까지 진격하였다.

발해의 등주 침입에 관한 신라 출병의 기록은 『삼국사기』에도 있다. 이것은 어느 사서보다 상세하다. 즉, 『삼국사기』 권8과 43의 두 곳이다. 전자는 『삼국사기』가 편찬될 때 중국측의 문헌을 그대로 채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후자는 자체의 원사료에 의거하여 기록된 것으로 본다. 각 사서에 보이는 등주공격의 시기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대조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 1> 사서(史書)에 보이는 등주침략 기사

史 書	記 事	出 典
資治通鑑	開元 20年 9月	卷213
舊唐書	開元 20年	卷199下 北狄傳
〃 〃	〃 21年	卷199上 新羅傳
新唐書	19年 9月	卷9 玄宗本紀
〃 〃	開元初	卷220 新羅傳
〃 〃	后十年	卷219 渤海傳
三國史記	開元 20年(聖德王 31)	卷46 崔致遠傳
〃 〃	〃 21年(〃 〃 32)	卷43 金庾信傳
〃 〃	〃 21年(〃 〃 32)	卷8 聖德王

신라 원정군의 책임자는 김유신의 손자 윤중(允中)·윤문(允文) 장군이 맡았다. 출동된 병력은 10만이었다. 이들이 당군과 합쳐서 싸운 전과는 알 수가 없다. 10만 병력은 660년 제1차 나당연합이 결성되어졌을 때 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10만명 그대로이다.

신라 출병의 의미는 한반도에서 당과 격렬하게 싸우는 대치관계를 풀고 새로운 우호관계로 돌입하는 계기를 만든데 있다. 이 점에서 신라는 당과의 마찰을 증식시키고 우호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라군대가 요동에 도착하자 한 길 이상의 대설이 내려 산길이 막히고 출동한 사졸이 반으로 줄자 성과없이 돌아오고 말았다. 중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진인각(陳寅恪)에 의하면 중국 동북지역인 하북(河北)과 요동 사이는 구력(旧曆)으로 8~9월에서 2~3월까지가 동한기(凍寒期)이고, 또 7월이 우기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피해서 단시간에 기습 공격을 하지 않고서는 승리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³¹⁾ 실제로 수가 4차에 걸쳐 행한 고구려 원정이 모두 실패로 끝난 것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요동의 기후 때문이기도 하였다.

VI. 맺 음 말

발해의 등주공격은 외교로 풀어가려는 의지보다 발해가 힘으로 해결하려는 데에서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이었다. 차분하게 적절한 처리를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대문예를 죽여야한다는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운 데에서 마침내 힘에 의한 기습전이 펼쳐치고 말았다. 때문에 당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기습의 효과도 있었다. 여기서 발해는 고구려가 수당에 저항한 길항(拮抗)의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과 그 태도를 계승한 일면을 보였다. 그러한 길을 택한 이유는 발해가 흑수말갈과 당을 상대로 헤쳐나가는 길이 외교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일촉즉발의 갈등을 기습전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고충이 깔려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발해·흑수말갈·당의 3각관계는 차분한 외교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신라는 당을 중심한 동북아시아의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당에 반대하는 반연환적(反連環的) 세계와는 달랐다. 신라는 한 번도 북방제국과 손잡지 아니하였다. 이 때문에 연합의 폭이 좁았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신라는 외교의 문이 좁았기 때문에 당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신라가 당에 대하여 대외교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사대란 바로 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같은 신라의 외교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없이 무작정 사대외교가 민족적 반역의 행위라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신라의 성덕왕때 결성된 제2의 나당군도 이 같은 신라의 좁은 연환적 관계에서 이

31) 陳寅恪, 『唐代政治史述論稿』(三人行出版社, 1974) p.286 참조.

루어진 것이다. 실제로 신라는 국제외교의 창구를 당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전쟁에서 신라가 얻어낸 대가는 당으로부터 패강(溟江) 이남의 땅을 할양 받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후 한국사에서 고구려적인 기상이 사라진 것을 아쉬워 하지만, 이와 반대로 비싼 대가를 치른 역사적인 전쟁을 교훈으로 삼아 헤쳐가는 외교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도 아쉽게 생각해야 한다.

요컨대, 신라의 해외출병을 두고 당의 일방적인 기대에 이끌려간 것이라는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이 시기 신라가 펼친 고도의 외교활동을 긍정적이고 폭넓게 살펴야 한다.